

치안감의 귀의

서울경찰청의 김기영 54 치안감 차장이 지난 2일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불교에 귀의하겠다"며 표현히 집을 떠났다.

지방경찰청장으로서의 영전 직인 시절과 정권말기, 대선정국 등 복잡한 시류 속에서 선언된 경찰 고위간부의 출가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선천이 슬러였던 가족력과 한 때 출가를 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이미 예정된 출가였다든 간에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는 '가진 자였고,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의 흥내조차 내기 어려운 입이기에, 그의 출가는 '귀의'란 행위의 순수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불교대사전(총편집은 여러 전직(典職)들의 해석을 빌어 '절대 믿음을 받들어 의지할 존재로 삼는 것'과 '불법'의 삼보(三寶)를 존중하는 것'과 '복'의 등으로 귀의를 설명하고 있다.

김 차장의 출가는 "종교 세상 동지고 머리 깎고 절에 간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남은 인생은 그동안 경찰생활로 바빠 본의 아니게 소홀했던 불교에 귀의해 보낼 작정'이라 한 그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계종의 한 중진스님은 "일할 때 열심히 하고 떠날 때 미련두지 않는 지혜를 보여준 것"이라며 "불법에 귀의하는 일은 자신의 청정심을 회복하고 불성을 밝혀 성취하겠다는 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김 차장의 출가는 맑은 교혼을 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인간에게는 돌아가 의지할 곳이 있고 거기서 때 묻은 마음을 닦아 본래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김기영 차장이 세간에 남긴 선물이라면,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았을 때를 돌아보는 지혜를 갖추는 것은 세간 사람들의 몫이겠다. **▶ 관련기사 4면**
임연태(뉴미디어부 부장)

“불교계 앞날 비관적” 74.7%

대학생 불자 200명 대상 설문...부정적 인식 높아



대학생 불자 10명중 7명이 불교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6명은 졸업 후 불교계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등 불교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단 자정과 불교인재양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같은 내용은 참여불교대거연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80여 대학원 지회 소속 대학생 불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

스님 청정성 저하·재가활동 미흡 이유 인재양성·자정 개혁·종교간 대화 요구

과 나타난 것이다. 설문은 불교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6명은 졸업 후 불교계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등 불교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단 자정과 불교인재양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같은 내용은 참여불교대거연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80여 대학원 지회 소속 대학생 불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

16.2%) 등을 꼽았다. 졸업 후 교계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60.6%가 '종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출가자의 경우 '육식을 허용해야 한다' (60.7%)고 생각하는 반면 '고급유흥장 출입'과 '화투/포커'에 대해서는 66.9%와 58.1%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신행경력에 대한 질문에서 38.8%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응답, 2000년 조사 때의 11%보다 크게 늘어났다. 반면 '대학교부터' (69.9+44.1) '고등학교부터' (14.2-11.2)의 비율은 낮아졌다.

▶ 관련기사 3면
한명우 기자 mhanu@buddhpa.com



“우리가 걸으면 세상이 열립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고행과 사회 준비를 위한 시민걷기 대회가 3일 열렸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홍 조계사 주지 등 스님들과 신도, 노인복지센터에 다니는 노인들, 가족 등 2천여명이 동참해 조계사에서 출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거쳐 강계대회를 가졌다.

사진=임민수기자

‘불교문화산업기획단’ 결성

이사장 도후스님 인프라 구축·콘텐츠개발·보급

불교계의 문화·언론·출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불교문화의 현대화를 통한 한국 문화산업 육성을 취지로 창립된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캐리커, 시나리오,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출판 등 문화 장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불교문화의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첫 사업으로 그동안 불교미술연구가 고미술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근·현대 미술 분야에는 무관심해왔다는 점을 인식해 활발한 연구 활동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근·현대 미술 기초조사 과정에서 목공예산정회사 관세음보살 좌상이 일제시대 최고의 조각가 김복진씨의 작품을 밝혀냈다. 한편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지난 7월 31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다.

김주원 기자 jim@buddhpa.com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제8회 공모

불교계의 정경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 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2002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풍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pa.com

12월 17일까지 편집국 담당자 앞

시상내역
▷ 대상 유마상
▷ 우수상 연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 회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회총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구독료 이달부터 월 5천원

기존 독자 종전대로 월 4천원 적용 구독료 자동이체 관음보살도 증정

이달부터 구독료가 신규 독자에 한해 한달 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구독료 조정은 본지 창간 이래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문 1부당 순수 제작비가 창간일인 1994년 10월 15일에 비해 2002년 9월 현재로 제작비 상승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67%나 상승했습니다.

현대불교는 구독료 인상을 계기로 독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기존 24면 발행 체계를 10월 2일부터 A판 12면 B판 16면 등 총 28면 발행체제로 변경합니다. 더욱 풍부해진 정보 생활 속의 불법 수행을 위한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존 구독자인 경우는 증전 구독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이달부터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만 새 구독료를 적용합니다. 1년 단위 구독신청에 적용하면 합인제도는 폐지합니다.

영구 구독신청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62만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새로 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사은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음보살도임의식작, 27cm×37cm, 시중판매가 2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하면 수년 높은 예술성이 됩니다.

구독료 자동이체 문의: 고객센터 (02)737-0000

현대불교신문사



특집 II 불교상담 어디서 어떻게 6~7면

창간 8주년 기념 금주 32면 발행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 및 가사불사 회향 법회

가야산 해인사는 천이백년의 긴 세월 동안 화엄의 근본도량으로서 중생들을 일깨우고 불자들의 신앙적 귀의처가 되어왔으며,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로 이름 높으며 삼백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도량입니다.

해인사는 매년 가을마다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신앙심 고취를 위해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보살계 수계법회와 아울러 올해에는 그동안 신심과 원력으로 동참하였던 가사불사를 회향하고 가사를 집안하는 의식을 해인총림 방장 법전 큰스님을 증령으로 모시고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는 가사는 무상의 대복전(大福田)이며, 최상의 해탈복(解脱服)이므로 이번 가사불사 회향에 동참하신 공덕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깨달음의 웃이 되었으며, 신도님들에게는 복덕을 짓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사불사에 적극 동참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야산 해인사에서 봉행하는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와 가사불사 회향법회」에 신도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고려 팔만대장경과 불법이 이 땅에 오래 머물기를 발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29 일 영가천도법회」에도 많이 동참하시어 조상을 천도하시고 가정의 안녕과 소원을 이루시길 축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불기 2546년 10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수봉 세민 합장

■ 일 시: 불기 2546년 10월 19일~20일 (음력 9월 14일~15일)
■ 장 소: 해인사 대적광전·보경당

10월 19일 (음력 9월 14일)		10월 20일 (음력 9월 15일)	
입재	오후 4시	영가시식	오전 4시
예불기도	오후 6시	패물방안	오전 7시
보살계법문	오후 7시	수계식	오전 8시
영가천도 대령관육	오후 9시	가사불사 점안	오전 10시

■ 중 명: 조계종정·해인총림 방장 법전 대종사
전계이사리/법전 대종사·갈마이사리/세민 대화상·교수이사리/해능 대화상
■ 법 문: 지관 큰스님(보살계 법문), 해인 큰스님(영가천도법문), 지오 큰스님(가사불사의 공덕법문)
■ 보살계 동참금: 삼만원 ■ 영가 동참금: 일위당 민원
■ 접수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중무소 / 055-931-1001-2 원주실 / 055-931-1009 천도재 사무실 / 055-931-8771-2 Fax / 055-931-1010
■ 온라인 접수: 농협 / 843174-51-003929 우체국 / 611806-01-000327 예금주 해인사